

# 수 요 인 터 뷰

## “부처님 법은 세상 밝히는 법 경전 잘 읽으면 누구나 시인”



### 미 당 서 정 주

20세기 한국 시단의 최거장 서정주. 앞 마당에 수북한 낙엽들을 보며 미당선생은 또 한해의 가을을 보내고 있었다. 낙엽을 바라보는 선생의 모습은 신라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방금 도착한 듯 그윽했다. 80의 세월에 주름진 얼굴은 차라리 고졸하고 다감한 우리의 할아버지이기에 도지람이 없지만 알뜰 없이 흐르는 시대의 혼돈을 걱정하는 시인의 마음은 알뜰의 산채나무 보다 맑고 투르렀다. 관악산 아래 단아한 시인의 집, 국화 한아름이 꽃피는 봉산산방(蓬山山房)에서 미당선생을 만났다.

-어느덧 입동(入冬)입니다. 무척 건강해 보이시군요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름엔 어름으로 살고 가을엔 가을로 살지. 아침에 일어나면 할망구와 같이 체조를 해. 거 있잖아, 국민학생들이 하는 체조말야. 그걸 하는 날과 안하는 날은 차이가 크다고.

늙으면 몸이 침체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산이름을 외우지. 무슨 산이름이나 하면 세계의 산, 천 6백25개의 산이름을 다 외고 6백25개의 산이름이야. 이것은 기억력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 많은 산이름을 4년전에 다 외웠어. 미국 아틀란티에 있을 때부터 말야. 천6백25개의 산이름을 다 외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만하면 아직 쓸만하다'란 생각이 들지. 산이름을 다 외고 나면 할망구하고 대문을 나서지. 자기 관음사가 있지, 그 곳까지 사들사들 걸어 갔다가 오거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그 좋은 기분으로 책도 보고 시도 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야.

-하루 독서는 얼마나 하십니까.  
▲뒤 대증있나. 앞뒤 없이 읽고 또 쓸 것이 있으면 쓰고 그러는 거지. 아직 내가 뜬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방금 공방에 다녀 오셨다는 데요.

▲음, 미국 친구가 왔었어. 잊지 않게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코넬대학의 교수로 있는 메켄이란 사내야. 내 시집을 미국에서 세권이 나 번역해 낸 친구인데 「한국과 일본의 현대시 연구」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 그래 그 친구가 인사차 들렀다가 간 거야.

-당호가 봉산산방(蓬山山房)인데 무슨 뜻입니까.

▲거 해 있었잖아. 단군신화에 응녀 나오지. 응녀는 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 우리의 어머니가 된 것인데 그것은 율희의 사상이거든. 인생의 쓰고 매운 것을 잘 참고 견디어 무언히 살면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 아닌가. 우리들 살아가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태호를 봉산산방이라 한 거

야.  
-요즘 세상이 몹시 어수선 합니다. 끔찍한 사건과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의 문명에 적응할 만큼 훈련이 돼 있지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거야. 그것은 민족의 지혜를 일러주는 교과서이기도 해. 그 좋은 교과서를 시로 쓰는 일은 즐겁지 뭐가.**

않아. 발전된 사회에는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인습이 따라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어. 주의력이 부족하고 치밀성이 없다는 거야.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야. 나도 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어려서부터 치밀한 교육을 안 시키니까 건설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가. 서양에는 국민학교에서 어문선교육도 시킨다 드만.

-이제 20세기도 다 저물어 갑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식인의 자세와 불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연이야. 자연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서 과학문명도 발달해야지. 자연과학 문명의 발달은 공해만 잔뜩 만들어 왔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거든. 인구나 땅의 면적을 생각 않고 들인다고 공해만 세웠으니 오늘의 환경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물 사먹는 세상이 어디 바로 된 세상이라 할 수 있나. 자연을 살려

야 해. 자연 속에서 그 비밀을 밝히고 그것으로 인간의 삶을 가꾸어야 자연을 짓밟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면 낭패 밖에 더 올 것이 없거든. 자연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와 융화해서 사는 길을 지식인들이 걸어야 한단 말야.

보인비가 많았잖아. 21세기 인류의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워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야. 마음의 정화에는 불교공부 밖에 방법이 없어. 거 있잖아. 오온이라는 것. 그 오온을 맑게 해야 열반에 든다고 '구경열반'이라고 하잖는가.

불교가 가르치는 마음공부를 모든 인류가 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야. 거기에는 종교간의 이질성도 필요 없어. 다 존중하며 화합해야 한다고. 내가 성심여대(存心여대) 있을 때에 강의를 가면 그때 학생들이 김재수 수녀가 참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기영박사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 종교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석경스님 알지? 그분 앞에서 남의 종교 욕하면 혼들이 났다고. '내집 어른 위할 줄 알면 남의 집 어른도 잘 위해야 한다'는 말씀하시거든.

-신라, 삼국유사등 우리의 역사를 시로 쓰시고 신화의 세계에 몰두하시다가 다시 세계의 여행을 통해 각국의 민족과 산들을 시로 쓰셨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한국적인 것으로 시의 주제를 옮겨 오셨는데 마치 커다란 회기선을 그으시듯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시의 관심이 세상을 두루 한바퀴 돌아 왔다고.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야.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아름답다는 거야. 그것은 민족의 지혜를 일러주는 교과서이기도 해. 그 좋은 교과서를 시로 쓰는 일은 즐겁지 뭐가.

-요즘 몰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욕망을 잠재우는 일을 하고 있어. 욕망을 잠재우고 말끔히 씻어내야 열반에 드는 것이거든. 사리사욕이 적으면 깨끗하게 살 수가

없잖아.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천국가는 것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더구만, 불교에도 슬하게 나오잖아.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끊으라고 말야. 그걸 그냥 가르침으로 듣고 흘리는 것은 무의미해. 진짜 욕망을 내 몸으로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욕망을 깨끗이 씻어낸 바로 그 세계가 니르바나의 땅이 아니겠는가. 순수 생명의 상태를 가져야 열반에 들어 갈 자격이 주어지니까 나도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지.

-그간 써 오신 시들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 그거야 없지. 있으면 시인이 못 되는 거야. 시를 쓰고 또는 시집을 내고 나서 평가 받으면 그걸 또 새로운 경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이를 먹고 나이값을 하는 것이야. 완전한 시가 어디 있나.

-경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경전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시인이 되지 못했을 거야. 거 왜 외잖아 (관무량수경) 같은 것 말야.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가. 경전이 묘사하는 세계와 경전이 말하는 진리, 그 표현과 구사력이야말로 최고의 문학이지.

그것을 배워야 해. 경전의 화술과 구사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문학의 길이 보인다고. 문학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전을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경전 속 문장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또 그 뜻을 알면 이미 누구나 위대한 문학인이 될 수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내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일이 뭐 따로 있는람. 오늘을 잘 살고 내년 또 오늘이 오는 것이지. 일생을 공부했다 해도 돌아보면 귀고리만큼도 아는 게 없지. 사는 자체가 공부의 연속이거든. 그저 욕심이 없이 공부하고 글쓰고 그러다가 글썽 숨 넘어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대담 : 임연태 기자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호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감응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사지정보(회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들뜬 올림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상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흥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